

단편영화

두둥탁!

영화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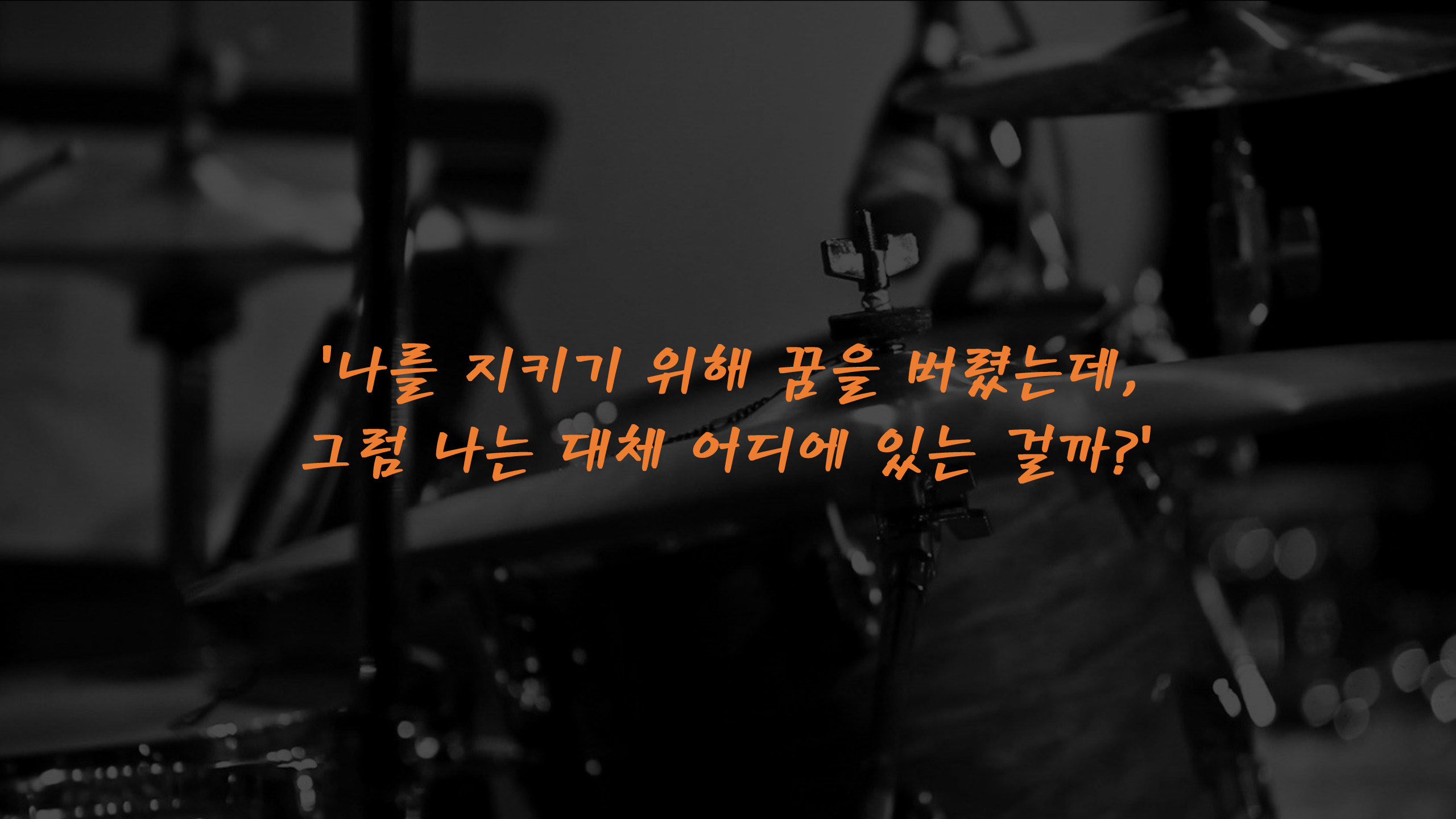
제목 : 두등탁!

장르 : 드라마 / 음악

감독 : 마지민

필름구분 : FHD / Color

러닝타임 : 15분 내외.

A dark, moody background featuring a person's silhouette on the left and a camera lens in the center. The text is overlaid in a bright orange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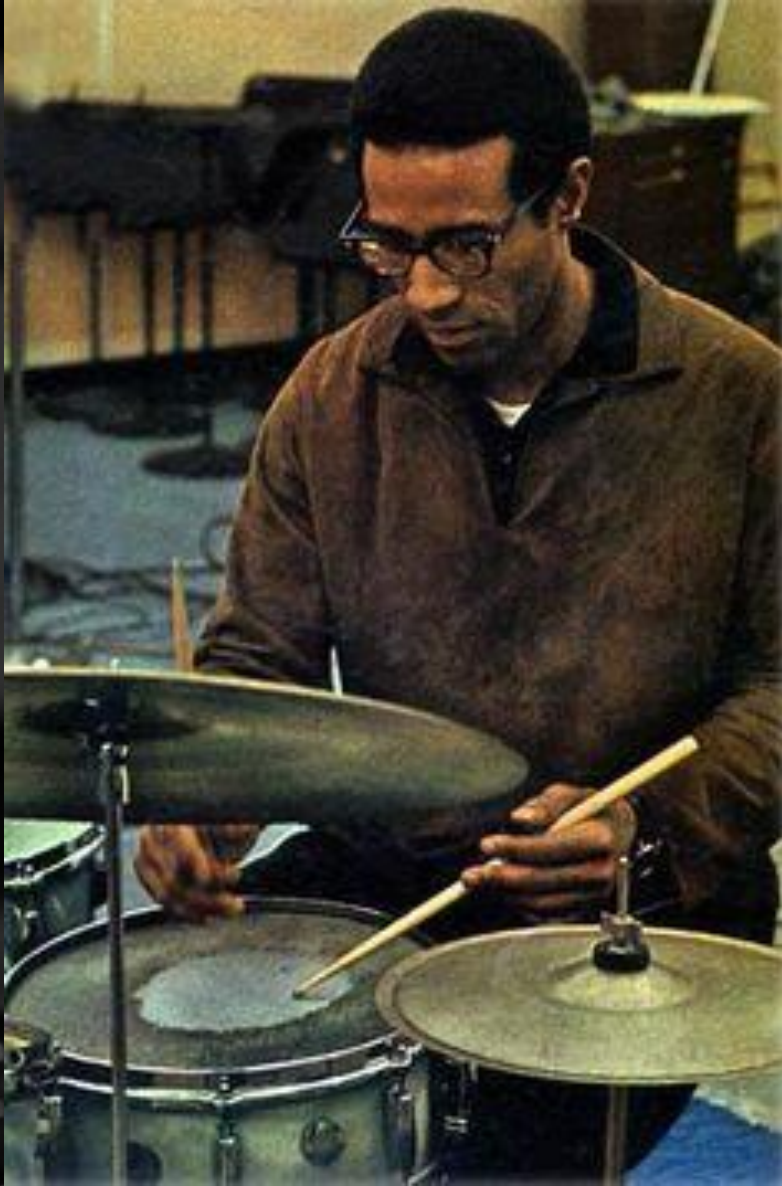
'나를 지키기 위해 꿈을 버렸는데,
그럼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기획의도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꿈이 있다.”

<두동탁!>은 꿈을 놓아야만 살 수 있는 드러머 김원의 이야기입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며 꿈은 나이, 재정, 능력, 혹은 외압에 의해서 막히곤 합니다.
예술하는 친구, 사업을 하는 아버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 포기한 사람, 모두 꿈에 대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마음 한 켠의 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두동탁!>은 꿈을 포기하는 사람, 꿈을 버렸던 사람, 꿈을 꾸는 사람.
이 세사람을 통해 우리가 실패함에도, 자꾸만 꿈을 좇고자하는 원동력을 말하고자 합니다.



로그라인

유학에 실패하고 드럼을 치는데 두려움이 생긴 김원은
쪽방으로 이사한 날, 자신의 드럼과 꿈을 팔기로 한다.

시늬시스

“알지 현실도 보고 돈도 봐야지..
근데 있지.. 그럼 이제 난 무슨 낙으로 사냐...”

유학에 실패하고 쪽방으로 이사하는 드러머 김원(29,남).
중고가전 판매제안을 하는 이사업체 직원, 성철(40,남)에게 드럼을 팔기로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비싼 드럼가격에 곤란한 성철과, 원금받고 팔려고 하는 김원.
둘은 드럼상태를 두고 갈등을 겪는다.

결국 김원은 드럼 상태가 괜찮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연주를 시작하는데..
자신의 연주에 감동받은 사람을 보고 또 다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캐릭터

김원 (성별무관 / 29세)

“왜 자꾸 깎으세요.. 그래도 이게 제 전부였는데”

빛을 내서 유학을 갈 정도로 드러머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드럼을 치며 안정감을 받았던 그였지만,
성공은 커녕 쪽방에서 살게 되며 드럼은 점차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이에 결국 김원은 드럼을 팔며 드러머라는 꿈을 놓기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론 드럼에 대한 애정을 놓지 못해 힘들어 한다.



- 이미지 레퍼런스 (배우 변요한, 이민지)

이미지보단 드럼 연주 가능하신게 더 중요합니다

캐릭터

박성철(남/40대)

“열정만 좇다가는 그냥 나가리아..”

옛적 밴드를 꿈꿨지만 잊고 이사업체 일을 한다.

큰 집으로 이사하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나날,

좋아하는 애한테 드럼연주를 해주고 싶다는 아들의 첫 부탁을 듣게 되는데..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곤란함을 겪는다.



- 이미지 레퍼런스 (배우 고창석)

제작 일정

	4월	5월	6월	7월
Development	←→			
Pre-production		←→		
Production			←→	
Post-production			←→	

많은 지원 바랍니다!